

KIA 김조호 단장 기자 간담회

“감독·선수 투지 넘쳐 내년 시즌 희망 보인다”

“최근 일본 훈련캠프에 다녀왔는데 선수들의 열정이 대단하더군요. 한 선수에게 약수를 청했는데 손바닥이 온통 물집 투성이어서 약수도 못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취임한 김조호 신임 KIA 단장(사진)은 지난 27일 취임 첫 공식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 분위기라면 내년 시즌엔 가을에도 야구를 할 수 있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김 단장은 “조범현 신임 감독 등 코치진의 의욕은 물론 선수들의 투지도 넘쳐난다”면서 “지금의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취임 두달째에 접어들던 김 단장은 “이제야 조금씩 팀의 분위기가 눈에 들어온다”며 가장 성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이 뛰어나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투수진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코칭스태프는 서재응보다 나은 우타자인 SK 이호준

의 영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몸값이 너무 높아 염두가 나질 않는다”며 이호준의 영입에도 관심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김 단장은 최근 팀내에 불어닥친 연봉 삭감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김 단장은 “이미 70% 정도는 연봉 협상이 끝났다. 전체적인 연봉 삭감폭은 20% 안팎이 될 것이다”면서 “아직 고액 연봉 선수인 이종범과 심재하 등과의 협상이 남아있는데, 지난 시즌 성적이 부진했던만큼 성적에 맞게 연봉을 정할 생각”이라며 대폭적인 삭감 방침을 밝혔다.

김 단장은 또 부임과 동시에 단행했던 구단 구조조정도 현재 진행형임을 강조했다.

김 단장은 “아직 구조조정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일단 내년 시즌을 지켜본 뒤 팀의 체질을 다시 한번 바꿀 계획”이라며 “성실하지 않고, 대충대충 일하거나 운동하는 구단 프런트와 선수는 KIA에선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선수단 구성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감독에게 위임한 김 단장은 “조 감독도 예외는 아니다. ‘권한’과 ‘책임’은 함께 따르는 것”이라며 “조 감독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분명히 했다. 내년 시즌 성적이 떨어지면 선수단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임기를 다 못 채울수도 있다는 점을 말했다. 반면 다년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조 감독도 이같은 의견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며 취임식에서 밝힌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단장은 현재 팀 구성에 대해서는 “조 감독으로부터 젊은 투수진의 능력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서재응 영입 서두르지 않겠다”

이종범 연봉 대폭 삭감 시사

는 서재응과 용병 영입을 끝냈다.

김 단장은 서재응과 관련해 “서재응이 미국과 일본 야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 한국행을 결정하면 구단도 나설 계획이다”며 “하지만 오래 기다리진 못한다. 12월 중순까지 기다릴 생각이다. 몸값은 20억원 이상도 생각하고 있지만, 황간에 떠도는 50억원설은 터무니 없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용병 영입과 관련해 “이미 영입할 선수를 모두 정해놓은 상태다. 다만 2명 모두 투수로 할 지, 투수 1명과 타자 1명으로 할 지는 감독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면서 “용병 문제는 서재응의 영입 여부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현재 팀 구성에 대해서는 “조 감독으로부터 젊은 투수진의 능력

영암 아크로CC 퍼블릭 전환

내년 1월부터...전국 최초

지난 2003년 10월 개장한 회원제골프장 영암 아크로CC(파18·7천510야드)가 내년 1월부터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 운영된다.

28일 아크로CC는 최근 전남지역에 회원제 골프장이 잇따라 증설되고 있어 영업환경의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골프대중화에 부합하고 경쟁력을 갖춘 골프장으로 재탄생을 위해 퍼블릭 골프장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원제 골프장의 퍼블릭 전환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아크로CC는 현재 회원 500여명(주중회원 포함)의 입회금을 반환하는 등 전환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렸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아크로CC측이 회원들의 사전 동의나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퍼블릭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크로CC관계자는 “그동안 아크로CC 회원권 시세가 높게 책정되지 않아 입회금 반환 작업이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내년부터 대중골프장으로서 골퍼들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중 프로골프투어

내년부터...매년 2회

한국과 중국의 프로골프 선수들이 두 나라를 오가며 대회를 치르는 한국-중국 프로골프투어가 내년부터 시작된다.

한국프로골프투어가 중국골프협회와 함께 여는 한국-중국 프로골프투어는 외환은행이 타이틀스폰서를 맡아 한중투어 KEB의 비테이셔널이라는 명칭으로 해마다 2차례

대회를 3년 동안 개최한다.

내년에는 3월께 중국 상하이에서 1차 대회를 치르고 9월이나 10월 한국에서 2차 대회를 열 계획이다. 대회당 총상금은 4억원이며 한국과 중국의 프로골프 선수 130명, 그리고 해외 초청 선수 10명 등 140명이 출전한다.

한국프로골프투어와 외환은행, 그리고 이 대회를 주관하는 CJ미디어는 28일 프라자 호텔에서 조인식을 가졌으며 오는 12월 중국에서 중국골프협회와 함께 대회 관련 기자회견도 열기로 했다. /최재호기자 lion@



“미국서 개인훈련 전념”

KIA 최희섭 12월 초 출국

내년 1월 팀 훈련 합류 예정

“미국에서 개인 훈련에 매진하겠다.” 파혼의 아픔을 겪은 최희섭(28·KIA)이 다음달 미국에서 개인훈련으로 몸을 다진다.

KIA는 “최희섭이 12월 초 오리건주 포틀랜드로 건너가 개인훈련을 소화한 뒤 내년 1월 초 합동훈련 때 팀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 23일 4주 기본 군사훈련을 마친 최희섭은 이날 오전 광주구장에서 차영화 2군 감독과 면담한 뒤 곧바로 의무 트레이너와 메디컬 체크를 받기 위해 훈련

장을 떠났다.

최희섭은 이날 차 감독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나 때문에 팀 분위기가 나빠질까 걱정이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훈련해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희섭은 또 메디컬 체크를 받는 이유에 대해선 “군사훈련이 평소 생활 습관과 맞지 않았고,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허리와 무릎에 약간의 통증이 왔다. 또 군사훈련 기간 몸무게가 10kg이나 빠져 전 체적인 컨디션을 살펴보고 싶다”고 밝혔다.

최희섭은 또 “모든 것을 마음속에서 정리하겠다”며 파혼의 아픔을 빨리 극복하고 싶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경문호’ 대만전 선발은?

(올림픽 야구대표)

전병호·류현진·박찬호·류제국 등 거론

2008 베이징올림픽 야구 예선전에서 한국의 운명을 가를 12월1일 대만전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만전 선발의 윤곽도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선동열 대표팀 수석코치는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어느 때보다 훈련량은 많았다”며 사흘간 훈련에서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어느 한 선수가 튀어나와 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김경문 감독도 “평가전에서 투수진이 많이 얻어맞았지만 이게 그들의 100% 기량은 아니다”며 긴장감 속에 치러질 마지막 훈련에서 투수진의 부활을 기대했다.

가용 자원을 몽땅 쏟아 부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만전에는 좌완 전병호(삼성), 류현진(한화)과 우완 박찬호, 류제국(롯데)이 선발 후보로 거론된다.

역대 대만 길러온 선수들을 살펴볼 때 빠른 볼과 제구력을 겸비한 우완 투수가 대만전 선발로 이상적이나 박찬호와 류제국의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아 김 감독의 고민이 깊다.

선 코치는 도리어 ‘느림의 미학’을 살린 중인 전병호가 효과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뜻을 함축 훈련 기간 중 밝혔다.

130km대 직구와 다양한 변화구로 상대 타 이목을 뺏는 절묘한 투구를 선사 중인 전병호가 힘 좋은 대만 타자들을 요리하는 데 적격이라는 판단이다.

전병호가 타자가 일순간 집인 3회까지만 무실점으로 막아주고 그 사이 점수를 뽑는다면 불펜을 총동원, 지키는 야구를 펼치겠다는 게 선 코치의 계산이다.

하지만 넘치는 힘을 앞세워 정교한 일본 스타일까지 가미한 대만 타자들에게 자칫 변화구 투수는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병호 카드’는 위험하게 느껴진다. 제구가 잘 된다면 문제는 없지만 실투로 연결됐을 때 분위기를 일시에 넘겨주는 장타를 허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또 박찬호와 류제국이 사흘간 기적적으로 빠른 볼과 제구력을 회복한다면 더할 나위 없었지만 현지 그라운드 사정 등 적응거리가 만만치 않은 현실에서 큰 기대를 바라기엔 무리라는 평가다. 게다가 박찬호는 불펜보다 선발을 원하고 있다.

대표팀이 ‘썩어도 썩지’라는 점에서 주장 박찬호에게 대만전 선발의 막중한 책임을 맡길 지, 냉정하게 컨디션이 좋은 투수를 낙점할 지 주목된다.

日 야구대표 “한국 이대호 경계하라”

내달 1~3일 2008 베이징올림픽 야구 예선전을 앞두고 격전지 대만 타이베이에 도착한 한일 대표팀이 일제강점기 상대팀 경계 선수를 거론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니치와 스포츠호치는 28일 일본 대표팀이 한국팀 4번 또는 5번 기용이 예상되는 내야수 이대호(25·롯데) 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내달 2일 한국과 대결에서 일발 장타를 조심하는 한편, 주자가 있을 때에는 정면 승부를 피하고 볼넷으로 내보내는 작전도 검토 중이다.

일본이 이처럼 이대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 때의 악몽 때문이다. 당시 일본팀 에이스 마사자가 다이스케는 이승엽 경계령에도 불구하고 정면 승부를 걸었다가 예선리그에서는 2점 홈런, 3~4위에서는 결승 2타점 2루타를 얻어맞으며 무릎을 꿇었다.

주전 포수인 아베 신노스케(요미우리)는 “이대호는 들뜬 대로 대단한 선수”라며 “볼코스가 조금만 빗나가도 안박하게 쳐낸다”

골프·연도 회원권개 전환기임
특별리 회원권
골프장 시세: 3,500, 4,300, 8,200
클럽: 900, 12,200, 7,400
상담: (062)351-0095

“받을테면 받아봐라”

28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07 수원코리아 챌린지 국제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남자 단식 경기에서 한국의 김다정이 태국의 비라이릭에게 강타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